

한전 에너지신산업 창업지원센터 효과 '톡톡'

개소 후 3년간 32개 기업 배출...청년창업 핵심 거점 입주 기업 임차료 등 무료 제공...현재 9개 팀 '등지'

에너지신산업 분야 창업을 지원하는 '한전 에너지신산업 창업지원센터'가 올해까지 지역 32개 창업기업을 배출했다.

25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3년 여 동안 32개의 지역 에너지신산업 관련 창업기업이 '한전 에너지신산업 창업지원센터'를 이용했다.

창업지원센터는 지난 2017년 6월 동구 동명동 창업공간 아이플렉스(I-PLEX)에 문을 열었다.

이 센터는 에너지신산업 분야 창업지원 정책의 핵심거점 역할을 맡았다.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저변 확대와 청년창업,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늘리기 위해 조성됐다.

광주시와 한전이 공동 운영하는 이곳은 스타트업 기업 10개가 입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한전은 사무실 3개실을 임차해 10개 업체

가 이용할 수 있는 243.5㎡(약 75평) 규모 공간을 마련했다.

한전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은 임차료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무료로 제공 받는다. 회의실과 3D프린팅 기기, 강의실, 그리고 아이플렉스 공용시설 모두 이용할 수 있다. 1개 기업당 한 해 지원받는 예산은 300만원 정도다.

입주 대상기업은 창업 7년 이내 신생기업과 스타트업으로, 최장 3년 동안 이곳을 이용할 수 있다.

8월 현재 한전 창업지원센터에 등지를 튼 기업은 모두 9개 팀이다.

이들 업체의 주력 분야는 에너지 생산-재생 플랫폼, 태양광 공동투자 플랫폼, 인공지능 냉난방 시스템, 스마트플러그, 감염방지 안전시스템 등 모두 에너지신산업 관련이다.

수소연료전지 개발을 주력 사업으로 내건



한전 에너지신산업 창업지원센터는 광주시 동구 동명동 아이플렉스에 등지를 튼 뒤 3년 여 동안 32개 창업기업을 배출했다. 지난 2017년 개소식 모습. <한전 제공>

한 업체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고 관련 특허를 내기도 했다.

한전 관계자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성장 기반이 열악한 지방 에너지 분야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광

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에너지신산업 사업성공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전 중소벤처지원창업지원부(061-345-8454)에서 알아볼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조계현 원장의
톡톡 창업이야기



다시 떠오르는 점포공유와 숍인숍

사이비 종교인인지 극우 정치인인지 헷갈리는 사람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코로나19는 다시 전국적으로 빠르게 재확산 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이 하루 빨리 해제되는 날만을 기다리며 어렵게 버텨오던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예비창업자들에게는 또 다시 암울하고 끝을 알 수 없는 터널에 진입한 듯 막막하고 맥이 빠지는 상황이다.

매출이 다소 줄어든 소상공인들이야 그나마 나은 상황이지만 적지 않은 자영업자들은 수익은 커녕 폐업이나 임대료 걱정부터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비창업자들도 생존을 위한 전략적 접근 방식의 창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기존 자영업자와 예비창업자들의 이해와 니즈(Needs)가 맞아떨어져서 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 창업방식이 점포공유형 창업과 '숍인숍' (Shop in Shop) 창업이다.

점포공유형 창업은 하나의 점포 안에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사업자들이 공간을 공유해 창업을 하는 형태이며 그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공유주방 형태의 창업이며 뜻을 같이 하는 창업자들의 공동으로 점포를 계약한 후 공유주방을 만들어서 동일한 영업시간에 각자 다른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는 방식이다. 주로 배달창업 아이템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기존에 창업을 해서 운영중인 자영업자의 점포를 특정 시간대를 나눠서 다른 아이템으로 창업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가령 저녁 시간대만 운영하는 주점이 점심 시간대에 집중할 식당창업을 하는 사람과 공간을 공유하거나 야간영업을 안하는 식당이 야간시간대에 집중할 주점창업을 하는 사람과 공간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점포공유형 창업의 장점은 창업비용의 대폭 절감과 임대료 부담의 완화, 매장 홍보효과 확대, 고객공유, 적은 창업비용으로도 핵심상권으로의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고객 입장에서 다양한 메뉴의 이용이 가능하고 체험적 요인으로 신선한 경험이 가능하다.

숍인숍 창업은 시간대를 달리해 영업을 하는 일반적인 점포공유형 창업과 다르게 기존 점포와 동일 시간대에 영업을 하는 공간공유형 창업이다. 가령 미용실 내에 네일아트 공간을 만들어서 창업을 하거나 슈퍼마켓 내에 정육점 공간을 만들어서 창업을 하는 형태다. 숍인숍 창업의 장점은 점포공유형 창업과 마찬가지로 창업비의 대폭 절감과 임대료 부담의 완화, 매장홍보효과와 확대, 고객공유, 적은 창업비용으로도 핵심상권으로의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영업시간대가 같아서 운영전략의 공유와 공동마케팅이 가능해 홍보비의 절감도 강점으로 꼽힌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점포운영에 애를 먹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리스크가 너무 커진 상황에서 창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업비 절감과 고객증가에 도움이 되는 상호 윈윈형 창업 형태가 점포공유형 창업과 숍인숍 창업이라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다. 다만 단독형 창업이 아니라 어찌 보면 협업형 창업에 가까운 형태를 띄기에 상호 리스크를 최소화 하고 안정적인 협업이 가능하도록 정확한 계약서의 사전 작성이 중요하다. 특히 계약기간과 계약조건, 보증금이나 월세의 부담조건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는 시점에서의 폐업이나 매각 등에 대비한 정확한 계약조건의 명시가 필수적이다.

<한국지역산업연구원 원장>

구도심 낡은 빈집 변신한다

LH, 빈집 매입 확대...창업공간·공공주택 등 활용
내달 23일까지 접수...2030년까지 5천가구 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낡은 빈집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창업공간이나 공공주택 등으로 제공하는 '빈집 이음' 사업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구도심 쇠퇴에 따라 증가하는 빈집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H가 빈집을 매입·비축하고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해 지역에 필요한 주택·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프로젝트다.

LH는 2018년 부산과 지난해 인천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 올해는 두 지역을 포함한 광주, 대전, 전주, 진주 등 6곳에서 총 100가구의 빈집을 매입한다.

매입 대상은 대지면적 100㎡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60㎡ 이상인 빈집(단독주택 위주)이며, 2개 이상 연결한 빈집을 동시에 신청하거나 빈집과 연결한 주택·나대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우선 매입한다.

매입 여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서 시행한 빈집 실태조사 현황을 바탕으로 1차 선정하고, 실태조사가 되지 않은 경우 LH가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매입 가격은 LH가 선정한 복수의 감정 평가사가 낸 평가액의 평균 금액 내에서 LH와 매각 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한다.

상태가 양호한 빈집은 LH가 매입한 뒤 도시재생사업 시행 전까지 보건복지부와 연계한 아동친화 복합공간이나 지자체 등과 연계한 창업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지역에 제공한다.

활용이 불가능한 빈집은 마을 공유 주차장 등으로 조성한다.

빈집 매입 신청은 다음달 23일까지 받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청서는 우편으로만 접수한다.

LH는 2030년까지 이 사업을 1조 5000억원을 투입해 빈집 5000가구를 매입,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지역에 제공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청·청·콘 20대 비대면 분야 창업 경진대회

내달 18일까지 모집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분야 창업 경진대회가 다음 달 18일까지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대면 분야 청년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청청콘' 참가자를 다음 달 18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진대회는 만 2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나 업력 1년 이내 창업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청청콘'은 청년 선배 스타트업 대표(CEO)가 후배 청년 스타트업을 선발하고 이끄는 콘테스트라는 뜻을 지녔다.

지원 분야는 스마트 헬스케어, 온라인 교육, 스마트 비즈니스·금융, 생활 소비, 엔터테인먼트, 물류·유통 등 6대 비대면 부문이다.

진단·재활용 웨어러블, 원격의료(스마트 헬스케어)와 핀테크, 스마트 상점, 게임, 드론·무인기 배송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회는 서면·발표 평가를 거쳐 총 60개 팀을 선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한다. 이후 11월 최종 발표를 통해 18개 팀을 뽑는다.

선정된 18개 팀은 초기사업화자금과 다음해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기술보증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초기사업화 자금은 대상 1억2000만원(6팀), 우수상 8000만원(6팀), 장려상 5000만원(6팀)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

중기부-MS, 스타트업 육성 '마중'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공동 운영하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마중'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9월17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마중 프로그램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앞글자를 딴 것이다. 중기부는 지난해부터 글로벌 기업과 함께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 창업기업 30개사다. 선정된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중기부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

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 인프라를 활용한 스타트업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 테크놀로지 센터를 활용해 스타트업을 교육하고,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미국 현지 벤처캐피탈과 연계해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관련 사업설명회는 오는 28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